

제 46회 무역의날 국무총리상 수상 연구개발 및 품질안정화 주력, 연포장 업계 선도



서영철
Flair Flexible Packaging Corp. 대표

Flair Flexible Packaging Corp.(이하 Flair)의 서영철 대표가 지난 해 11월 30일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재외동포 부문 유공자 포상에 대한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서영철 사장은 “개인적으로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그 동안 회사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임직원들, 그리고 한국의 협력업체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 계신 협력업체분들의 북미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저의 한국내 포장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의 한계로 인해 서로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16년 동안 꾸준히 변치않는 믿음으로 거래를 하여 주신 많은 한국 협력업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974년 중학교 재학시절 캐나다로 이민 간 서영철 사장은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캐나다 식품업체에서 포장 관련 경력을 쌓은 후, 1992년 Flair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연포장 비즈니스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다.

초기에는 북미시장에서 약 2천 8백여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유통회사인 SAFEWAY에 Chicken Bag에 대한 신포장 방법을 제안하고, 납품을 하며 안정적인 회사성장의 기반을 이루었으며, 이를 계기로 인쇄 및 합지(LAMINATION)된 제품 뿐 만아니라, 다층 공압출(MULTI-

12년전 기술개발팀 신설로 경쟁력 확보

LAYER COEXTRUSION) BLOWN/CAST 필름, DOUBLE BUBBLE 공압출 필름 분야 까지 연포장 사업을 확대하게 되었다.

한편 서 대표는 제사들에 의해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켈거리 국술원(한국 전통 무술)관장직을 겸하고 있는 등 다재다능한 사업가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1992년 설립된 Flair Flexible Packaging Corp.은 지난 해 6천만불 규모의 매출을 달성한 연포장 전문업체로 설립 초기, 영업을 통해 고객 접점을 중시한 고객만족형 마케팅 업체로 출발했다. 그러나 서영철 대표는 품질보다는 가격경쟁만을 우선하는 비즈니스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고, 가격을 통한 무한경쟁으로는 지속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 약 12년전부터 기술개발팀을 신설, 현재까지 연구개발과 품질안정화에 주력해 나가고 있다.

현재 북미시장은 전 세계 연포장 산업의 각축장이며, 최신 기술의 경연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Flair는 이에 견줄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의 협력업체들과 더불어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들어 가가는데 주력해 나가고 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국내(한국) 포장업계의 기술향상에 직결되는 값진 성과이자 보람”이라고 강조하는 서영

철 사장의 방침에 따라 플레어는 지난 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 3천만불을 넘어서게 됐다.

캐나다 켈거리에 위치한 약 130,000SQFT 규모의 FLAIR 본사는 R&D센터, 사무실, 생산시설 및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Technical Support Group, Domestic Production, Design, Logistics, Procurement, IT, Marketing, HMR, Customer Service Group 등 약 6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R&D센터는 포장소재 개발을 위한 GC/MASS, FT-IR/MICROSCOPE, DSC, MSA와 같은 최신 분석 기기 및 BURSTING TESTER(MOCON), INSTRON, HEAT SEAL TESTER, COF TESTER, LEAK TESTER, RETORT TESTER 등 기타 물성시험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다.

87,000 SQFT 규모의 미국 위스콘신 지사에는 13명의 직원들이 미국 중동부를 커버하고 있으며 그 외 씨애틀, 밴쿠버, 몬트리올, 멕시코시티 등지에 영업지사와 물류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Flair는 총16개의 한국내 협력업체들과 기술개발 및 거래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Unisource, Safeway, Gerber, General Mills, Nestle, Smucker's, Wal-mart, Cargill, Lucerne, Parmalat 등을 포함한 수많은 고객들

을 위해서, 전 세계 25개국의 1천여개가 넘는 도시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최근, 기술력을 인정 받아 의료 및 군수 분야에서도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

서영철 대표는 “북미의 식품포장은 미국(FDA)과 캐나다(CFIA)의 까다로운 포장재 관련 규정과 식품위생법을 준수해야 하기에 진입장벽이 높다”고 전한다.

이를 이를 극복하고, 경쟁력있는 신기술을 도입하여 북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

Flair는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굴지의 모국기업에서 수 십년간 근무한 이들을 영입, 꾸준히 보강하고 있으며, 지난 해부터는 자체적으로 1년과정 포장전문가 교육 프로그램(Packaging Training Program 1~3)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올해 처음으로 13명의 수료생을 배출, 그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서영철 대표는 향후 세계의 포장시장은 무역자유화(FTA), 업체간 인수합병 및 플라스틱 재활용 등 환경문제와 관련된 요인에 따라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북미 포장업체는 경제적 여건, 환경적 변화를 세밀히 분석하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장 설계 및 기술력 향상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서 사장은 Flair 또한 신기술 집약형 기업으로 키워 나간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는 “연구와 개발없이 북미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며 경쟁력 강화는 기술력이 좌우한다”고 피력했다.

R/D에 집중 투자하여 북미 포장업계에서 한국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첨단 다층 공압출 기술이 접목된 Master Bag, Shrink Bag, 의료용, 군수용 특수포장의 영역확장등 미개척 분야를 개발하고 살려 나가는 것이 FLAIR가 최고의 연포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는 서영철 대표.

한편 그는 한국 포장업계의 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해 Flair를 포장 관련 학과 학생들이나 종사자들의 해외연수 현장으로 개방, 산학협동을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Flair와 협력업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위해 늘 주력한다는 서영철 대표.

연포장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Flair의 발전에 업계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 [K]

박초혜 기자